



젊은 포장과학인의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 포장발전의 시금석이다

Opinion of Expansion Packaging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으로 국가경제 회생에 큰 타격을 주고있는 요즘 포장인이 고대하는 한국포장협회와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통합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포장계에 미정유의 타격이다.

현 시점에서 신진포장인 모두가 양 기관의 통합은 포장산업 발전의 진운이 걸려있는 중대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포장인의 관심사는 포장협회와 포장연구원의 통합에 있다.

이 양 기관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절대 절명한 과제이므로 포장산업 발전이란 대의명분을 갖고 학회가 개입하였다. 즉 4년 전부터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 동안 한탄과 환호의 소리가 교차되면서 아직도 전도가 불투명하다.

이런 안타가운 현실에 학회장으로서 좌시할 수 없어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수를 드는 것은 역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학회의 설립목적과 마찬가지로 본 학회도 포장과학 및 기술을 발전시켜 포장학술 및 문화의 향상과 산업발전에 목적을 두며 포장계의 공기(公器)로써 포장기술을 통하여 인류복지에 기여함에 있으므로 일반 단체나 협회와는 창립목적이다 다르다. 이런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술활동은 순수한 학술신장과 국가포장산업 발전에 본연의 사명을 다하며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포장단체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인은 양 기관장과의 통합을 위한 여러 차례 대화와 3회에 걸친 통합 협의주선 및 많은 서명서, 그리고 산자부에 탄원서 등도 무위로 끝났다. 그러고나서 양 기관의 이사회 등의 협의 결과는 명암만 수없이 교차되어 아직도 의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신 동 소

한국포장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포장협회 포장연구원 양 기관의 통합만이

포장인의 양성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드디어 지난 5월 14일에 양 단체의 수장이 통합에 서명까지 한 마당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기우도 있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나 개인은 모든 포장인으로 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포장인을 슬프게 하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기성포장인은 젊은 포장인에게 신뢰와 꿈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양 기관의 통합은 포장의 구심체, 상생의 순리이며, 포장발전의 원동력이며 포장과학인에게 희망과 사기를 진작케 한다.

전국의 포장인은 양 기관의 통합에 따른 월간포장산업 설문조사에서 통합을 하여야만 한다는 73%의 찬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지난 4월 일반 포장인에 의한 탄원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것과 수많은 지성인의 진솔한 요망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기업경영은 국경을 초월하고 아웃소싱으로 가격경쟁에다가 일류상품만 살아남는 시대에 진정 국가 포장산업이 살아남는 데는 포장인의 타협과 신뢰를 쌓고 지도자의 도덕정신으로 미래 포장인을 양성하는데 통합만이 견인차 역할을 한다.

21세기는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나아가서 주변국의 포장산업의 발전의 조류와 개혁 및 개방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국내 포장산업발전을 가로막으므로 어찌 공적(公敵)이 아니겠는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신지식기반육성, 전자상거래의 이행, 국제포장협력, 주변국 즉 일본포장계는 접어두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막강한 포장산업의 대두 등을 직시하여 포장산업의 발전에 도약을 위한 역사적인 통합에 참여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7년 7월부터 4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 기관이 자율적으로 타협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제 산자부가 그 해법에 본질을 이해하였으므로 통합이란 역사적인 탄생을 위해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포장한국건설의 토대와 백년대계의 포장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ko]